

홍콩보안법 반대 격렬 시위...경찰 강경 진압

중전인대 보안법 제정 초강수
수천여명 모여 도심 행진 시도
최루탄·물대포 쏘며 강력 대응
야당 인사 등 수백여명 체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려는 초강수를 두자 홍콩 시민들이 이에 맞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홍콩 변화가인 코즈웨이베이 소고백화점 앞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홍콩보안법과 '국가법' (國安法)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또한, 홍콩 입법회는 오는 27일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법 안전을 심의한다.

이날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天滅中共)' 등의 팻말을 들고 "광복홍콩 시대혁명", "홍콩인이여 복수하라", "홍콩 독립만이 살길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완차이 지역까지 행진을 시도했으며, 일부 시위대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손에 든 모습이었다. 많은 시위 참여자는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상징인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섰다. 우산 혁명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았다고 해서 불어진 이름이다.

이날 거리에 나온 홍콩 민주화 시위의

주역 조슈아 왕(黃之鋒)은 "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며 "우리는 싸워서 이 법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야당인 퍼플파워(人民力量)의 탐탁지(譚得志) 부주석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에 끌려가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자! 홍콩과 함께!"라고 외쳤다.

경찰은 이날 시위에 대비해 8000여 명을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불법 시위가 벌

어지는 즉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 경찰은 이날 오후 시위대가 코즈웨이베이 지역에 모이자마자 최루탄, 최루 스프레이 등을 발사하면서 해산에 나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보였다. 경찰은 물대포도 동원했다. 경찰의 최루탄, 물대포 등에 맞서 시위대는 벽돌, 우산, 유리병 등을 던졌다.

경찰은 시위대가 코즈웨이베이 지역 상점들을 공격해 유리창을 깨뜨리고 길가에 폐품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으며, 경찰 4명

이 시위대의 공격으로 다쳤다고 밝혔다.

홍콩 야당과 법민주 진영은 "홍콩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 내에 중국 정보기관이 상주하면서 반중 인사 등을 마구 체포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다음 달 4일에는 '6·4 톈안먼(天安門) 시위' 기념집회가 열리며, 이어 9일에는 지난해 6월 9일 100만 시위를 기념해 다시 집회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7월 1일에는 홍콩 주권반환 기념 시위가 예정됐다.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이 24일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최루가스를 쏘자 달아나고 있다.

/연합뉴스

각국 지도급 인사들 거리두기 '내로남불' 눈총

오스트리아 대통령 단속 걸려

트럼프는 마스크 안쓰고 골프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늦추고자 국민에게 이동제한령을 강제하면서도 정작 지도급 인사들의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수도 빈의 한 식당에서 자정이 넘게 머물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5일 이동제한조치를 조건부 해제하면서 식당 영업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했다. 판데어벨렌 대통령

은 트위터를 통해 사과했다. 그는 아내와 친구 2명과 함께 외출했다며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핵심 측근인 도미니 커밍스 수석보좌관도 코로나19 증세 속에서도 장거리 이동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잇단 외부 행보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현충일 연휴 기간인 23~24일 이를 연속으로 버지니아 주 스티링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라운딩했다. 미국 50개 모든 주(州)가 자택봉쇄령 완화 조치에 들어간 와중의 골프였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파트너들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코로나로 방학 연기한 북한, 초·중·고 곧 개학

지난달 대학·고3 이어 등교

개학 앞둔 학교 방역물품 확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가까이 연기했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곧 추진할 전망이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5일 "각지 학교, 유치원에서 새 학년도 개학을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위원회에서 새 학년도 개학을 보장하기 위해 일꾼(간부)을 각 도에 보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각 도와 사·군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각급 정권(행정)기관들에서 교종별 신입생 접

수와 학교, 유치원들의 개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사용할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확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매체는 "학교, 유치원의 방역사업에 필요한 소독기재, 소독수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매년 4월 1일이 공식 개학일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방학 연장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달 20일 대학교 고급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년만 먼저 개학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학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에 유치원과 초등·중등교육 개학 준비 사업을 공표한 것은 북한의 전면 개학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한 셈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33〉 이청조

이청조(李淸照, 1084~1151)의 호는 이안거사(易安居士)로 현 산둥성 제남시에 해당하는 제주 장구 출신이다. 송사(宋詞)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이다.

예부시랑을 지낸 부친 이격비는 소식의 제자로 낙양의 정원을 묘사한 낙양명원기(洛陽名園記)를 남겼다. 부친의 가르침 덕에 어려서부터 시작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1101년 18세때

금석문 연구가인 조명성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여러 명문가 집안의 청혼이 성에 차지 않아 거절했는데 조명성이 금석학에 조예가 깊고 언행이 바르다는 말을 듣고 혼인을 결심했다. 남편과 함께 서화·골동품 수집에

몰두했다. 조명성은 매달 이틀씩 휴가

성의 고향 청주도 함락되었다. 부부는 강남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다. 수집한 진귀한 서화와 골동품을 모두 남겨둔 채 일부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심정을 이청조는 금석록 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금의 도적떼들이 개봉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망연지실했다. 집안 가득 쌓여 있는 금석문과 고서화를 생각하니 애가 타고 슬펐다.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황실은 강남으로 내려가 남송 왕조를 세웠다. 1128년 초봄 남송 고종 2년 강남의 지부로 부임해 있던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1129년 고종은 조명성을 건강으로 불렀다. 폭염에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 정성껏 치료를 하였지만 그해 8월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떠나보

중국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시인

를 내 개봉의 상국사에 들러 고서와 골동품을 사들였다. 시아버지 조정지가 권력 싸움에서 밀려 실각하자 남편도 관직에서 물러나 부부가 함께 산둥성 청주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수집한 서적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세월을 보냈다. 조명성은 금석학 연구에 매진해 '금석록'이라는 저서를 완성했다.

그녀는 권모술수가 능한 시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조정지 또한 고분고분하지 않은 며느리가 맘에 차지 않았다. 조정지가 친정아버지인 이격비를 탄핵하는 일도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지방 근무로 서로가 떨어져 사는 시간이 많았다. 매화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어가오(漁家傲)는 자신을 잊지 말고 사랑해 달라는 고백시로 남편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조명성은 자신이 지은 시구와 함께 친구 육덕부에게 가장 잘 된 것을 뽑아달라고 요청했다. 육덕부는 이청조가 쓴 취화음(醉花陰)이라는 시도 떨어져 있는 남편에게 보낸 시다. 시를 받아 본 조명성은 자신이 지은 시구와 함께 친구 육덕부에게 가장 잘 된 것을 뽑아달라고 요청했다. 육덕부는 이청조가 쓴 취화음의 다음과 같은 마지막 3구절이 제일 좋다고 평가했다. "영혼을 상하게 않는다고 말하지 마시오. 주름을 거두니 가을바람 부네. 사람이 국화보다 더 아쉬웠구나."

1125년 금나라가 복송을 침략했다. 개봉이 함락되고 휘종과 흠종은 북쪽으로 끌려가고 복송은 멸망했다. 조명

내고 오랜기간 병고를 치렀다. 금군이 남하한다는 소식에 금석문과 고서화를 강서의 홍주로 옮겼으나 금군이 홍주를 침공해 귀중한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 동생 이항과 함께 항주로 피난간 연후야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때 쓴 대표적 시가 영우락(永遇樂)이다.

남편 친구인 장여주가 청혼하자 받아 들여 새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장여주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관심이 있던 속물이었다. 폭력도 일삼았다. 결국 국청에 장여주를 고발했다. 장여주는 유주로 유배되었고 그녀는 다시 혼자 되었다. 그녀의 재혼설에 대해서는 청나라 유장섭, 이자성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그녀의 뛰어난 재주를 시기한 일부 문단의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진위여부는 알 수 없다. 성성만(鄭成曼)은 이때 지어진 대표작이다. 자신의 몰락한 처지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

그녀가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녀는 송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남송의 대표적 시인이자, '중국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 시인'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도 남편의 부속물에 불과한 여성의 신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실력과 재주로 우뚝 선 신여성이다.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문인의 한명으로 중국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